

■ 박근종 칼럼

양극화 골만 깊어진 자산 불평등,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최근 12년 새 더욱 심화된 조사 결과가 나와 당혹감을 더한다.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가 지난 10월 26일 공개한 최근 12년간(2011~2023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보면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0.011이나 상승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부분별로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결과인데, 양극화 골이 깊어진 상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는데, 근본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집값 상승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집값 안정이 정부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환기하는 조사 결과다.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감소 중이나, 자산·교육·건강 3개 분야 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더 이상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져 국민이 느끼는 '부의 양극화'의 실체가 확인된

셈이다. 소득에만 초점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소득의 불평등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0.064나 떨어졌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는 미미하게 줄어드는 반면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격차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2012~2024년까지),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특히 지속적인 증가를 했는데, 2023년~2024년 사이 지니계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23년 0.392로 0.026 낮아져 시장소득 불평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0.064 하락하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5년 새 0.036 낮아졌다. 하지만 2018년(0.593)부터 상승해 2024년엔 0.616을 기록해 6년 새 0.023이나 높아졌다. 그동안엔 소득(38.9%)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

이었으나 2023년부터 자산(35.8%) 요인이 소득(35.2%) 요인을 추월했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교육·건강 등 다른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표다. 건강 역시 저소득층, 시골 거주, 1인 가구 일수록 나빠졌다. 이대로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선 안 된다.

'교육 분야'를 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국내 상위 50개 대학 입학자 비율의 차이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 분야'의 불평등은 소득,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저소득층·읍면 지역 거주자·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중) 지역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읍면 지역 거주자는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제는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부동

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1년 25.5%에서 2023년 35.8%로 10.3%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대로 소득(38.9%→35.2%), 교육(20.9%→16.0%), 건강(14.7%→13.1%) 불평등의 기여도는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소득(기여도 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했다. 자산 불평등을 방지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당연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있다.

2022년 연세대학교의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6.6%, 경제·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1.5%, 소득·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3.7%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은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이미 체감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세제 개편이 긴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엄정하게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결단해야만 한다.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돼 '정원도시 서울'에 방점을 찍는 도심 정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심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도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적극 도입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30년 '서소문빌딩 재개발' 클래식 공연장 들어서 도심 서측 문화 랜드마크〉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의 빠대인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간던 서소문 일대는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 예술의전당처럼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음악·무용 등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품격 있는 문화공간이자 도심 서측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지상 4~9층 공연장 공중 배치로 추가 확보된 저층부 외부공간은 녹지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재창조 모델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녹지생태도심 '서소문빌딩 재개발'...녹지·문화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

11.5(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성과 발표 및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

서소문 일대 1만8천㎡ 녹지...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녹지생태도심' 전략

오는 '30년 '서소문빌딩 재개발' 클래식 공연장 들어서 도심 서측 문화 랜드마크

오는 '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앞으로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힐튼 부지 등 재개발 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 새로운 도심 비즈니스 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5(수)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 재개발(▲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서소문 11.12지구 ▲서소문 10지구)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민재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2년 4월, 서울시가 채택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이다.

시는 녹지생태도심을 위해 '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개방형 녹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서소문 일대 1만8천㎡ 녹지...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녹지생태도심' 전략〉

시는 그동안 녹지생태도심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던 개발지구 녹지가 '하나의 정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8,140㎡까지 확보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제안한 개방형 녹지 면적에 따라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도시 활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생태계정원·무대·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양동구역(서울역 앞) ▲수표구역(을지로3가 일대) 등, 보존 위주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와 비교해 약 5배 많은 총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추진 이전 연평균 약 2.7건에 그쳤던 도심 정비사업은 정책 시행 이후 연평균 12.8건으로 대폭 늘었다.

부산우수식품, 요리로 탄생하다

롯데호텔 부산 블루헤이븐에서 열려...지난 8월 부산우수식품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 한 입 거리 음식·디저트 조리법 처음 선보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후 5시 30분 롯데호텔 부산 블루헤이븐에서 「부산음식(B-FOOD) 레시피」 시즌3 공개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우수식품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지난 8월 완성된 조리법(레시피) 24종을 처음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시즌에는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씨 등 9인이 개발팀으로 참여해 한 입 거리 음식·디저트 조리법(레시피) 24종을 개발했으며, 오늘 시는 그중 15종의 요리를 선보인다. 한 입 거리 음식 16종, 디저트 8종 조리법은 ▲어묵, 국수, 명란, 들기름, 고등어 등과 같은 부산우수식품과 ▲기장미역·다시마, 대변항 멸치 등의 부산 향토 식재료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개발팀은 개발 착수보고회, 사례연구 등을 통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팀원별 조리법(레시피) 개발, 합동 테스트, 이야기(스토리) 발굴 단계를 거쳐 지난 8월 말 조리법(레시피)을 완성했다. 행사는 ▲개발 과정을 담은 개회(오프닝) 영상 소개 ▲개발 메뉴 조리법(레시피)·이야기(스토리) 소개 ▲시식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의회,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언론, 기업, 음식 전문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시즌3 조리법(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부산우수식품제조협회를 비롯한 9개 부산우수식품 제조사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지역 식품산업과 미식 정책 간 협력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셰프 등 미식 전문가를 포함한 각 계각층의 참석자들은 개별 조리법(레시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한 입 거리 음식과 디저트를 시식한다.

이번 시즌3 조리법(레시피)은 정찬과 도시락, 시식 행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용형 조리법(레시피)으로, 지역 식품산업과의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24종의 조리법(레시피)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장과 호텔, 외식업소 등에서도 해당 조리법(레시피)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리법(레시피)은 향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등의 공식 만찬 메뉴로도 활용돼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미식도시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대구인디싸운드페스티벌

대구광역시시는 11월 7일(금) 오후 6시, 11월 8일(토) 오후 3시 이들 동안 228기립중앙공원 중앙무대에서 '2025 대구인디싸운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구인디싸운드페스티벌'(이하 '대구인디싸페')은 (사)인디063이 주최·주관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는 무료 야외 음악축제다. 전국 각지에서 독창적인 색깔을 가진 인디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의 인디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록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대구 밴드 8팀과 제주·인천·전주·대전·부산·경남 등 타 지역 대표 밴드 6팀이 무대에 오른다.

첫날인 7일에는 오후 심금을 울려줄 ▲비제로(대구)의 무대를 시작으로, 창원록페스티벌에 참여한 ▲곰치(경남), 아시아송페스티벌(ASF)에 출연한 ▲심

상명(대구), 부산국제라페스티벌에 참여한 ▲감굴서리단(제주), 후쿠오카 한일교류 공연을 펼친 ▲근처(인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올해 첫 정규앨범을 발매한 3인조 록밴드 ▲이내꿈(대구)이 무대를 꾸민다.

둘째 날에는 SBS funE 음악방송 '더쇼(The Show)'에 출연한 ▲GR2N!(그린데이)(대구), 꾸준히 라이브무대에 오른 ▲퍼플오션(대구), 대전 인디씬을 대표하는 ▲스모강구스(대전), 전주엘티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한 ▲하즈(대구)와 ▲슬로우진(전주), 신스팝 사운드를 선보이는 ▲쑈로로스(대구) 무대가 이어진다. 또 부산라페스티벌과 해외 공연에 참여한 ▲야자수(부산) 공연과 대만·일본 등 동아시아권 무대에 진출한 ▲신도시(대구)의 무대로 파나레를 장식한다.

 세계타임즈	www.thesegye.com 가자제보 : news@theseg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 A 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